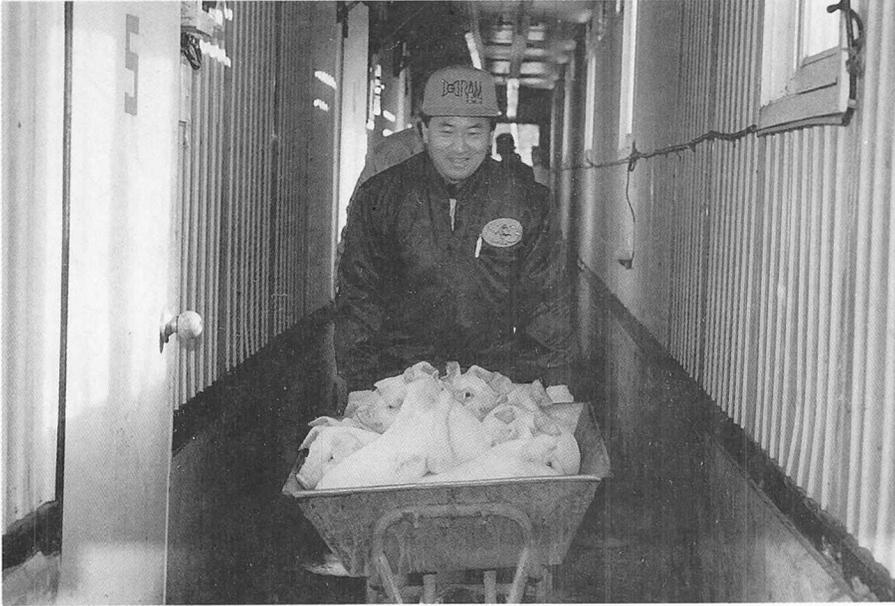


KBS TV 체험 삶의 현장 출연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 양돈장에서의 하루 - 돼지 몰러 나간다 -



취재 : 추용진기자

◀ 강운태 장관의 양돈장 1일 체험

지난 2월 19일 KBS 2TV에서 설날 특집으로 방영된 「체험, 삶의 현장」에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이 출연하여 양돈장에서의 하루를 직접 체험했다.

「체험 삶의 현장」은 조영남·이경실 사회로 이뤄지며 각계 인사와 인기 연예인들이 각양각색의 직업현장에 참여하여 그 댓가로 받은 돈을 불우이웃성금에 보태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영을 위하여 지난 2월 1일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은 경기도 이천군에 있는 인화농



◀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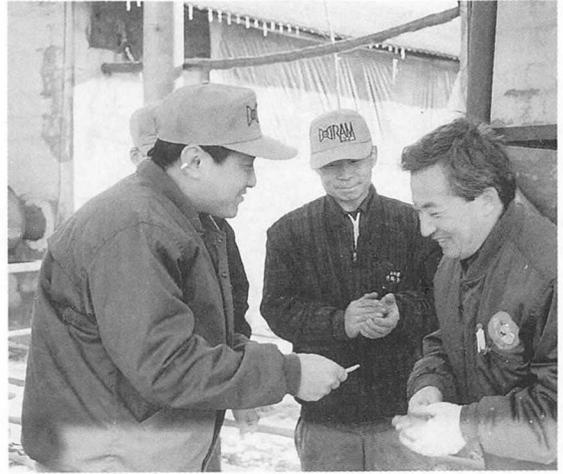
장(대표 : 정창영)에서 돼지 새끼를 받는 일부터 수출용 돼지를 골라 출하하는 일까지 양돈장 1일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강운태 장관의 양돈장 작업

은 임신돈을 임신사로 옮기는 일, 새끼돼지를 보온사로 옮기는 일, 수출용 돼지를 골라 출하시키는 일, 태줄 자르기, 젓물리기 등의 갖 태어난 새끼관리, 돼



▲ 돼지분뇨가 발효되면 양질의 비료가 된다구.



▲ 1일 근무수당은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양돈농가들을
행복하게 해주렴.

지우리청소, 돼지분뇨를 톱밥을 섞어 발효시키는 일 등을 하였다.

강운태 장관은 「체험 삶의 현장」에 출현하여 “돼지가 영특해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본다”고 말하고 “돼

지 박사가 다 되었다”며 작업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였다. 양돈장에서 가장 힘든 일은 돼지 돈사를 청소하는 것이었으며 수출용 돼지를 선별하여 출하하는 것도 힘든 작업이었다고 하였다.

강운태 장관은 양돈장 1일 사원 근무후에 “돼지꿈을 몇 번이나 꾸었다”고 말하고 “부귀영화와 다산을 상징하는 돼지꿈을 우리 농민에게 나누어 주어 모두가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양돈장에서 흘린 땀의 댓가는 분만수당(5,000원)을 포함하여 40,000원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보태졌다.